

연세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문항 1	3
문항 2	6
2025학년도 인문계열	9
문항 1	9
문항 2	12
2024학년도 인문계열	16
문항 1	16
문항 2	19

2026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총 100점)

[가]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인간의 자연 스러운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性), 정(情), 려(慮), 위(僞)의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마 음이 움직이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 네 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단계인 ‘성’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본질이자 날 때부터 지닌 본성입니다. 배 고르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리적 본성입니다. 둘째 단계인 ‘정’은 사람 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기는 감정입니다.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 니다. 셋째 단계인 ‘려’는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고하는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흘 동안 굶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싶다는 본성적 욕구를 느낄 것이고, 그때 떡을 본다면 입에 침이 고이면 서 저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 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모르는 척하고 혼자 먹을지 나누어 먹을지 아니면 그냥 다 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 다. 이것이 ‘려’입니다. 넷째 단계인 ‘위’는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내는 작용입니다.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합니다. 순자에게는 의지적인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 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 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In a peaceful revolution, the nobles of Sweden in 1809 deposed* King Gustav IV whom they considered incompetent. Then, they surprisingly invited Jean Baptiste Bernadotte, a French general who served under their enemy Napoleon, to become the King of Sweden. When Bernadotte addressed in the Swedish Parliament in their language, his broken Swedish made the Swedes roar with laughter. In this incident, Bernadotte was a victim of culture shock: never in his French education and military career had he experienced subordinates who laughed at the mistakes of their superior. He was a good learner, however, and he led the country as a highly respected constitutional ruler until 1844.

A social psychologist developed the concept of power distance,**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 more powerful and the less powerful in social contexts, based on the research among the employees of a global firm in similar positions but different countries. Power distance is one of the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t reflects the range of answers found in the various countries to the basic questions of how to handle the fact that people are not equal. The index of power distance (PDI) for 50 countries was calculated. The PDI of Sweden was 31 out of 100 and that of France was 68. The higher the PDI, the greater the feeling of power

distance. Nonetheless, it does not mean that a country of small power distance is culturally better than that of large power distance.

The PDI informs us about dependence relationships in a country. In small power distance countries, there is limited dependence of subordinates on bosses, and a preference for consultation,^{***} that is, interdependence between boss and subordinate.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m is relatively small: subordinates will quite readily approach and contradict their bosses. In large power distance countries, in contrast, there is considerable dependence of subordinates on bosses. Subordinates respond by either preferring such dependence on a dictator or an authoritarian boss, or rejecting it entirely, which is known as counter-dependence. For example, when there is a disagreement, a few subordinates refuse to follow their bosses. Large power distance countries thus show a pattern of polarization^{****} between dependence and counter-dependence. In most cases, however, subordinates are unlikely to approach and contradict their bosses directly.

Power distance is explained from the perceptions of the less powerful members. Still, previous studies on leadership have often forgotten that leadership can only exist as a complement to subordinateship.^{*****} Authority survives only where it is matched by obedience.^{*****} Bernadotte's problem was not a lack of leadership on his side: the Swedes had a different conception of the respect to a ruler from the French, and Bernadotte was a Frenchman. Comparative research projects on leadership valu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how that the differences observed exist in the minds of both the leaders and those led.

* depose: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다.

** power distance: 권력거리

*** consultation: 토의, 협의

**** polarization: 양극화

***** subordinateship: 부하로서의 행동 양식

***** obedience: 복종

[다]

드디어 드레퓔스가 프랑스 군사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한을 씹으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군부는 기상천외한 삼류 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명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필적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부는 국민 감정 뒤에 몸을 숨긴 채 못사람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정신을 왜곡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국가적 범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재판이 저질러졌습니다.

드레퓔스 사건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참모 본부의 한 장교가 어느 날 외국의 한 대사관 요원이 에스페라지 소령에게 보낸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엽서를 본 장교는 명세서의 작성자가 드레퓔스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국방부 장관직에 막 취임한 비요 장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를 들은 비요 장군과 참모 본부는 에스페라지 소령의 유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페라지 소령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퓔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요 장군은 드레퓔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몹시 깨끗한 채로 장관직에 취임했기에, 그는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지휘하는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자신이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을 하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책임은 커져만 갔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죄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요 장군과 부하들이 드레퓔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위의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프랑스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부디 저를 중죄 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존경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

[문제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 A] 저자의 주장을 분석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군주에게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군주가 군대를 통솔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군대란 병사들이 그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군사적 업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의 부대에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냉혹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예시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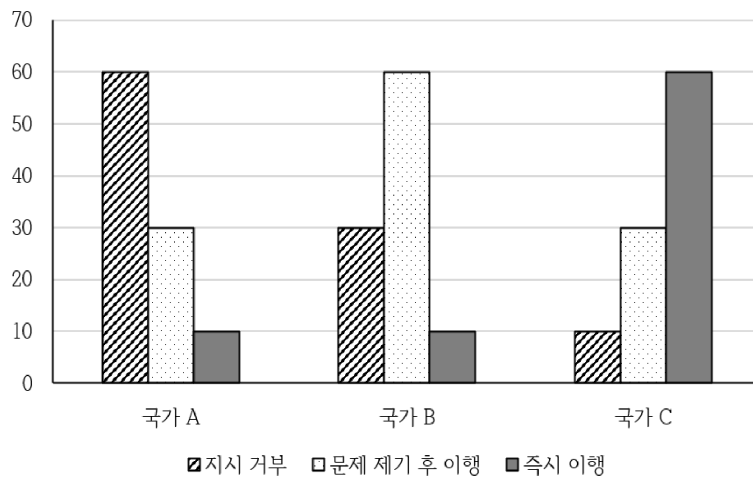
※ 제시문 (가), (나)는 앞 문항(문항 1)을 참고하시오.

[라]

어떤 조사기관에서 국가별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가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 국가 A, B, C를 조사했다. 기업 문화 중 특히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의 대응 방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1) 끝까지 거부, (2) 문제를 제기하지만 결국 이행, (3) 문제 제기 없이 즉시 이행. 국가별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 평균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국가별 대응 유형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 외의 다른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국가별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 비교 (국가 평균)

국가	A	B	C
개인 윤리성	높음	높음	낮음
권력거리	큼	작음	작음



<그림> 국가별 직원들의 대응 유형 (단위: %)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국가별 차이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어떤 회사의 대표가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 지수 x 를 구간 $[0, 1]$ 에서 정한다. $x = 0$ 이면 모든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완전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고, $x = 1$ 이면 상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행하는 완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이다. x 가 증가할수록 수직적 조직 문화에 가까워진다. 대표가 x 의 값을 정하면, 부서 A의 성과는 $g(x) = -5x^2 + 2x + 3$ 이 되고, 부서 B의 성과는 $h(x) = x^3 + x$ 가 되며, 회사 전체의 성과는 $f(x) = g(x) + h(x)$ 가 된다. 구간 $[0, 1]$ 에서 부서별 성과 $g(x)$ 와 $h(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을 각각 x_1, x_2 라 하자. 이때 대표는 지나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거부감이 있어서 전체 성과 $f(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 x_3 을 $x \geq m$ ($0 < m < 1$)에서 정한다. m 은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x_1, x_2, x_3 의 값을 각각 구하고, 그 값들을 비교하여 해석하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 예시 답안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는 국가 A, B, C의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의 평균을 각각 ‘높음-낮음’, ‘큼-작음’으로 제시한다.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는 <그림>에서 제시되는 국가별 직원들의 대응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은 세 국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림>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 대응 방식의 세 가지 유형(지시 거부, 문제 제기 후 이행, 즉시 이행)이 차지하는 비율에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와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① <표>를 통해 <그림>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조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함.
- ② <표>에서 국가 A, B는 모두 개인 윤리성 수준이 높은 국가이지만 권력거리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면 권력거리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음.
- ③ <표>에서 국가 B, C는 모두 권력거리가 작은 국가이지만 개인 윤리성 수준은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면 개인 윤리성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음.

[문제 2-2]

(1) 부서와 회사 전체의 성과가 최대가 되게 하는 값 도출

부서 A의 성과인 $g(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_1 을 구하기 위해 함수를 변형한다.

$$g(x) = -5x^2 + 2x + 3 = -5(x - 0.2)^2 + 3.2$$

따라서 $x_1 = 0.2$ 임을 알 수 있다.

부서 B의 성과인 $h(x)$ 는 구간 $[0, 1]$ 에서 증가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x_2 = 1$ 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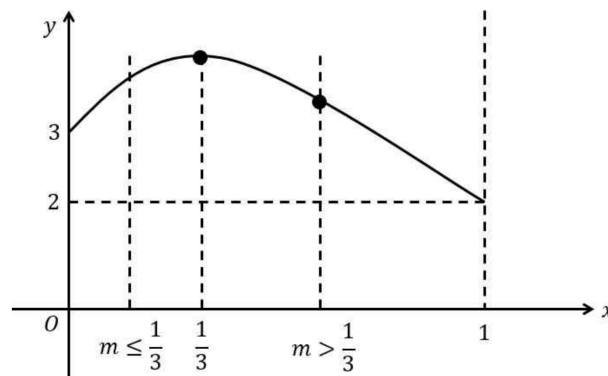
회사 전체의 성과는 $f(x) = x^3 - 5x^2 + 3x + 3$ 이다. 먼저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한다.

$$f'(x) = 3x^2 - 10x + 3 = (3x - 1)(x - 3)$$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x	0		$\frac{1}{3}$		1
$f'(x)$	+	+	0	-	-
$f(x)$	증가	증가	극대	감소	감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함수 $f(x)$ 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함수 $f(x)$ 가 최대가 되는 x 의 값은 m 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

(a) 만약 $m \leq \frac{1}{3}$ 이면, $x = \frac{1}{3}$ 이 $x \geq m$ 을 만족하므로, $f(x)$ 는 $x_3 = \frac{1}{3}$ 에서 최대가 된다.

(b) 만약 $m > \frac{1}{3}$ 이면, $x = \frac{1}{3}$ 이 $x \geq m$ 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f(x)$ 는 $x_3 = m$ 에서 최대가 된다.

(2) 결과 비교 해석

- ① 부서 A의 성과인 $g(x)$ 는 $x_1 = 0.2$ 에서 최대가 된다. 이는 부서 A의 성과가 비교적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가장 좋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g(0) = 3 > g(1) = 0$ 이므로 지나치게 수직적 조직 문화가 부서 A의 성과를 낮출 수 있다.
- ② 부서 B의 성과인 $h(x)$ 는 구간 $[0, 1]$ 에서 증가하고, $x_2 = 1$ 에서 최대가 된다. 이는 부서 B의 성과는 조직 문화가 수직적일수록 더 좋아지고, 완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가장 좋을 것을 의미한다.
- ③ 회사 전체의 성과 $f(x)$ 는 원래 구간 $[0, 1]$ 에서 $x = \frac{1}{3}$ 에서 최대가 된다. 이 값은 $x_1 = 0.2$ 와 $x_2 = 1$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성과가 좋은 부서 A와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성과가 좋은 부서 B의 성격을 절충하여 중간 정도의 조직 문화를 택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다만 $x = \frac{1}{3}$ 은 $x_1 = 0.2$ 에 더 가까운, 비교적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다. 따라서 부서 A가 회사 전체의 성과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④ 그러나 회사의 대표는 지나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x \geq m$ 에서 조직 문화를 선택한다.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한 경우, 즉 $m \leq \frac{1}{3}$ 이면, 회사의 대표는 회사 전체의 성과를 고려하여 $x_3 = \frac{1}{3}$ 을 선택한다. 하지만,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경우, 즉 $m > \frac{1}{3}$ 이면, 회사의 대표는 회사 전체의 성과를 가장 높여주는 $x = \frac{1}{3}$ 대신 $x_3 = m$ 을 선택한다. 이처럼 대표는 부서 A와 B를 종합한 회사 전체의 성과와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절충하여 조직 문화를 선택한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총 100점)

[가]

오늘날 우리는 인간 복제, 안락사, 사형제도, 테러리즘 등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피할 수 없다. 도덕적 행동은 인간성의 존엄함과 숭고함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죽어간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삶에서,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웃에게서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발견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의 좋음이나 유용함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의 선함, 즉 선의지에 있다. 왜냐하면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선의지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즉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를 말한다. 달리 말해서 선의지란 오직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 두려움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덕법칙을 명령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도덕법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명령으로 다가온다. 도덕적 명령은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란 자기 의지의 모든 주관적 규칙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명령을 따르는 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수립한 보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즉, ‘의지의 자율’이다.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로우며, 그 자유의 본질은 의지의 자율이다.

한 사람이 선택한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주관적 규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주관적 규칙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성적 검토를 거쳐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 규칙을 자신의 행위 규칙으로 삼아서 그 규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도덕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와 타인을 보편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미를 집어던졌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직히,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별안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 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많은 개미들이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동물학자가 된 이후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솔제니친의 <모닥불과 개미>를 읽었을 당시에는 나도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는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한다. 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었다. 유

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살아 숨 쉬는 우리는 사실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어 자기를 희생하는 개미들의 행동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명쾌하게 다시 분석하면서 황홀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황홀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없어져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없어질 필요는 없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의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담담히 가면 된다.’ 그러면 세상도 나도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다]

Come on, let's examine our consciences, let's listen to our hearts. We know very well who you are; we know very well that you are all brave men! We know very well that your souls are full of the joy and the glory of giving your lives for the great cause; we know very well that you feel you've been selected to die meaningfully and magnificently and that each of you is dedicated to your part in the triumph. You are not alone in this world. There are other beings you have to think of. You must not be selfish.

Citizens, do you picture the future to yourselves? Citizens, where are we headed for? We are headed for the union of peoples, we are headed for the unity of mankind. France will see the brilliant future in its history. Citizens, whatever happens today, through our defeat every bit as much as through our victory, we will bring about a revolution. Just as big fires light up the whole city, revolutions light up the whole human race. And what revolution are we going to bring about? I just told you: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We do not doubt our cause even if we doubt our success. Help is evidently on the way. But, whether the civil army comes to help us or not—what does it matter! Let's get killed here to the very last man!

Friends, the moment we have reached, this moment in which I'm speaking to you is a cruel moment. But this is the terrible cost of the future. A revolution is a toll**. Oh! the human race will be liberated, lifted up, and relieved! We swear to it on this barricade***. Where will the cry of love go up from if not from the height of sacrifice? Oh my brothers, this is the very spot where those who think and those who suffer come together as one. Here, suffering meets the ideal. Here, the day embraces the night and says to it: I am going to die with you, and you are going to be born again with me. From this embracing of all sorrows springs faith. Suffering brings its pain here, and ideal brings its eternity. This pain and this eternity are going to combine and compose our death. Brothers, whoever dies here dies in the glory of the future, and we will enter a grave entirely lit up by dawn.

* fraternity: 박애 ** toll: 통행료 *** barricade: 바리케이드

[문제 1-1] 제시문 (다)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아래 [지문 A]를 읽고 제시문 (가)의 관점과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도덕에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이성만 참이나 거짓을 밝히거나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있을 뿐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감정은 행위를 직접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때 오로지 자신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도덕적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의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애가 허영심이나 야망처럼 그렇게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않을지 모르나,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한 것으로서 유일하게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우리의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려줌으로써 도덕적 행위자에게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행동은 연민의 감정에서 나오지만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은 이성으로 강구할 수 있다.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예시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2

※ 제시문 (가), (나)는 앞 문항(문항 1)을 참고하시오.

[라]

한 연구팀이 2021년 말 모 도시에서 무작위로 고등학생 1,000명을 뽑아 가치관과 시간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는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에 동의한 학생들(A 그룹)과 ‘나의 미래는 나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에 동의한 학생들(B 그룹)로 구분했다. <표 1>은 각 그룹 학생들의 2021년 ① 월평균 공동체 봉사 시간, ② 월평균 자기개발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이 도시의 교육 당국은 2022년부터 공동체 봉사 시간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연구팀은 방침 변경 후 2022년 말에 A 그룹 학생들의 ① 월평균 공동체 봉사 시간, ② 월평균 자기개발 시간을 다시 조사했다. 방침 변경 후 공동체 봉사 시간 상위 50% 학생들(A-1 그룹)과 하위 50% 학생들(A-2 그룹)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그림 1>은 A 그룹과 B 그룹의 2021년 ‘생활의 즐거움’ 정도(100점 만점) 조사 결과, 그리고 A-1 그룹과 A-2 그룹의 2021년 방침 변경 전과 2022년 변경 후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다른 요소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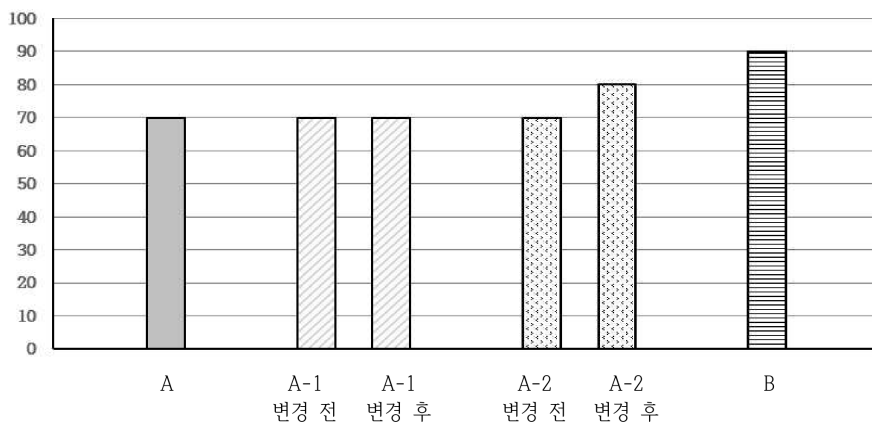
<표 1> A 그룹과 B 그룹의 조사 결과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A 그룹	20	10
B 그룹	10	20

<표 2> A-1 그룹과 A-2 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변경 후 조사 결과

	방침 변경 전		방침 변경 후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공동체 봉사 시간	자기개발 시간
A-1 그룹	20	10	18	12
A-2 그룹	20	10	14	16

<그림 1> ‘생활의 즐거움’ 정도



[문제 2-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어떤 국가에서 인구의 60%는 이타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나머지 40%는 이타적 기질 없이 태어난다. 타고난 이타적 기질의 유무는 헌혈, 장기기증,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에 영향을 준다. 이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 중 60%는 항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75%까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반면, 이타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 중 20%만 항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최대 25%까지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이 국가에서 전체 인구 중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의 최솟값을 P , 최댓값을 Q 라고 하자. 이 국가의 정부는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가능한 역량의 $100x\%$ (단, $0 \leq x \leq 1$)를 그 정책에 투입하면, $g(x) = x^4 - 8x^2 + 11x$ 만큼의 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정책을 통해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은 $P + x(Q - P)$ 가 되고, 참여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사회적 편익 $f(x) = 100\{P + x(Q - P)\}$ 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동체 활동의 편익에서 정책 비용을 뺀 $y = f(x) - g(x)$ 가 최댓값을 갖도록 x 를 정한다. 정부가 선택하는 x 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에 관한 결과를 제시문 (나)와 연결지어 해석하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 예시 답안

[문제 2-1]

제시문 (라) <표 1>은 의지를 중요시하는 학생들(A 그룹)과 타고난 재능을 중요시하는 학생들(B 그룹)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표 2>는 봉사 시간의 대입 입시 미반영 방침 후, A그룹 중 봉사 시간 상위 50%인 A-1 그룹과 하위 50%인 A-2의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표시하였다. <그림 1>은 A그룹, B그룹, A-1그룹, A-2그룹의 방침 변경 전과 후의 생활의 즐거움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2-2]

(1)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및 관련 함수 계산

전체 인구 중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 이타적인 사람 비율 $\times$ 이타적인 사람 공동체 활동 비율

+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 비율 $\times$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 공동체 활동 비율

이 식을 이용해 전체 인구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의 최솟값 및 최댓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최솟값: $P = 0.6 \times 0.6 + 0.4 \times 0.2 = 0.44$

최댓값: $Q = 0.6 \times 0.75 + 0.4 \times 0.25 = 0.55$

정부가 가능한 역량의 100%를 정책에 투입하면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중이 다음과 같다.

$$P + x(Q - P) = 0.44 + (0.55 - 0.44)x = 0.44 + 0.11x$$

이를 이용해 공동체 활동의 편익을 계산할 수 있다.

$$f(x) = 100\{P + x(Q - P)\} = 100(0.44 + 0.11x) = 44 + 11x$$

그러면 공동체 활동의 편익에서 정책 비용을 뺀 y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y = f(x) - g(x) = 44 + 11x - (x^4 - 8x^2 + 11x) = -x^4 + 8x^2 + 44$$

(2) 정부의 문제 풀기

정부의 문제는 y 가 최댓값이 되는 x 를 닫힌구간 $[0,1]$ 에서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y 의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y' = -4x^3 + 16x = -4x(x+2)(x-2)$$

$x = 0$ 이면 $y' = 0$ 이고, $0 < x \leq 1$ 이면 $y' > 0$ 이다. 따라서 y 는 구간 $[0,1]$ 에서 증가이다.

그러므로 구간 $[0,1]$ 에서 y 가 최댓값이 되려면 $x = 1$ 이어야 한다.

즉 정부는 가능한 역량의 100%를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에 투입한다.

(3)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비율을 제시문 (나)와 연결지어 해석

제시문 (나) 저자의 태도는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 관련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①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이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의 60%, 이타적 기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의 20%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즉 타고난 기질에 따라 공동체 활동 참여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P = 0.44$ 이므로, 인구의 44%는 유전자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은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제시문 (나)의 논지와 비슷하다.

② 그래도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정부는 $x = 1$ 을 선택한다. 즉 공동체 활동 촉진을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투입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이 점은 유전자가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상황에 힘을 다하여 살겠다는 제시문 (나) 저자의 결심과 일맥상통한다.

③ 하지만 인간의 성취는 유전자가 정한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정부가 $x = 1$, 즉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동체 활동 촉진 정책을 펼치더라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최댓값으로 규정된 $Q = 0.55$ 를 넘지 못한다. 즉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를 수 있는 일은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는 제시문 (나)의 주장과 비슷하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4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총 100점)

[가]

기원전 5세기의 중국 철학자 묵자는 그 당시 전쟁이 불러온 참상에 놀라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무엇이 보편적인 사랑과 상호 이익으로 가는 길인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다른 나라를 내 나라처럼 여기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20세기 말, 존 레논은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본다…… 온 세계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을 상상해본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노래했다. 이러한 이상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민족국가로 구성된 현실에 대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엔 아직 미약한 꿈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생명은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큰 재난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우선시한다. 우리는 자국민의 이익을 타국민의 이익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둔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단지 하나의 우연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디오게네스를 계승했던 스토아학파는 이 점을 인지하여, 국적이나 민족, 또는 문화 차이가 우리와 타인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특정한 정부나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인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국적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칸트는 인류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모든 사람에게서는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래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남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점점이 흩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환대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칸트는 이를 통해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인류는 세계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체제는 인류의 모든 근원적인 소질을 계발하고 완전한 시민적 통합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는 개념을, 민족국가를 뛰어넘는 도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나]

There are two kinds of cosmopolitanism.* One is the idea that we have obligations to others, obligations that go beyond those to whom we are related by the ties of families and friends, or even the more formal ties of a shared citizenship. The other is that we take seriously the value not just of human life but of particular human lives, which means seriously accepting the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practices and beliefs from particular human lives. People are different, the cosmopolitan knows, and there is much to learn from our differences. Because there are so many human possibilities worth exploring, we neither expect nor desire that every person or every society should integrate into a single mode of life. Whatever our obligations are to others (or theirs to us), they often have the right to go their own way. There will be times when these two ideals—universal concern and respect for legitimate difference—clash. There is a sense in which cosmopolitanism is the name not of the solution but of the challenge. For instance, we agree that more aid to an extremely poor country is a good thing, but government

officials in relatively rich countries need to consider their own trade and immigration policies in order to support their industries at home.

A citizen of the world: how far can we take that idea? Are you really supposed to give up all local loyalties and attachments in the name of humanity? Some supporters of cosmopolitanism were pleased to think so; but they often became easy targets of ridicule and were blamed for “rootless cosmopolitanism.” “A lover of humankind, but a hater of his family,” Edmund Burke said of Jean-Jacques Rousseau, who handed each of his five children to an orphanage.**

Yet, the ideal version of the cosmopolitan belief has continued to hold a strong fascination. Virginia Woolf once argued “freedom from unreal loyalties”—to nation, school, neighborhood, and on and on. Some contemporary philosophers have similarly urged that the boundaries of nations are morally irrelevant—accidents of history with no rightful claim on our conscience.

But, fortunately, we need to take sides neither with the nationalist who abandons all foreigners nor with the strict cosmopolitan who regards her friends and fellow citizens with cold fairness. The position worth defending might be called a “rooted cosmopolitanism,” which pursues universal values of world citizens, being grounded upon the differences in the lives of individuals, regions, and nations.

* cosmopolitanism: 세계시민주의 ** orphanage: 고아원

[다]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연주네는 딸을 두었는데 우리 준표 녀석이란 같은 어린이집, 같은 ‘사랑반’에 다녔다. 유학생 시절 같은 학교 유학생 선배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한국인 연주는 이 도시에서 애를 가지고 낳고 키워온 덕분에 ‘한국인 거리’라 불리는 계림로 부근의 골목골목을 이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넌 참 좋겠다…….”

외할머니가 보내준 학습지로 받침 없는 한글을 거의 뺐다는 연주네 딸내미, 그 어린 것이 발음하는 ‘표준 한국어’ 억양을 들을 때마다 소위 대학교 한국어 강사라는 나 자신이 슬그머니 무색해지곤 했다.

“왜? 난 언니가 부러운걸? 언니는 두루두루 다 통하잖아.”

연주는 택배 기사가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한참을 버벅거리다가 나한테 휴대폰을 넘겨주며 투덜댔다.

“아, 답답해. 룡리루* 후통**……. 이봐, 나도 언니처럼 하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은 못 알아듣는 거냐고?”

닝도 가끔 내게 그런 말을 하곤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샤부샤부를 해 먹던 날, 위성으로 한국 방송을 보며 그 분위기를 깊이 즐기는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너는 조선족이라 두 나라 말을 다 하니 참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요즘 들어, 나는 때로 한국에서 온 연주처럼, 혹은 한족***인 닝처럼 차라리 한 가지 말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만약 그랬더라면 나는 그 둘 중의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준표를 한족 유치원에 보낼지 조선족 유치원에 보낼지와 같은 문제 따위로 머리를 썩일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연주와 닝, 매번 그들과 만나고 돌아올 때면,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곤 했다. 옛날에 디오게네스라는 이는 온 세상이 제집이라 했다던데……。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하늘 아래 땅 딛고 서면 결국 다 같은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디오게네스는 아니었다.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도시에서 나야말로 모두와 다 통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애초의 희망과 믿음은 그렇게 꺾이고 있었다.

아기자기한 한국 소품들로 가득 찬 연주네 집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연주가 사온 ‘코리안 빵집’의 앙금 빵에 믹스 커피를 마시며, 책장 옆에 붙은 ‘한국 지도’와 거기 그려진 무궁화를 구경하다가 나는 속으로 문득,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그녀들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 지대, 그 지대마다 완전히 그 지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완전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처럼. 조선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나처럼.

* 룽리루: 중국의 촌급 행정구 ‘룽리촌’에 있는 길 ** 후통: 중국의 좁은 골목길을 이르는 말

*** 한족(漢族): 중국 본토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중국의 중심이 되는 종족

[문제 1-1] 제시문 (다)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교,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지문 A] 화자와 제시문 (다)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국철: 서울 지하철 1호선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예시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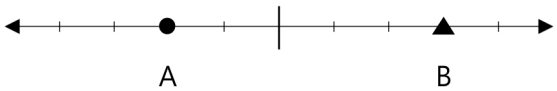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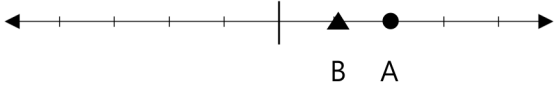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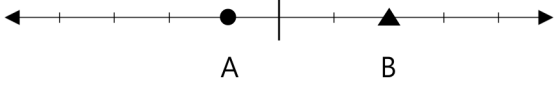
문항 2

※ 제시문 (가)·(나)는 앞 문항(문항 1)을 참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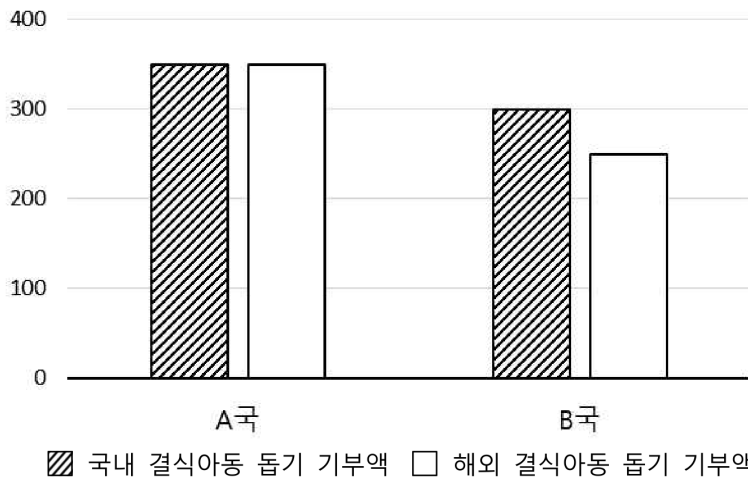
[라]

아래 <표>는 2022년 A국과 B국에서 각각 무작위로 뽑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ㄱ)과 (ㄴ) 중 무엇에 더 동의하는지 묻고 그 평균값을 표시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2022년 1년간 A국과 B국의 국민들의 기부금 총액이다. 두 국가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A국과 B국의 세계시민의식 조사

(ㄱ)	(ㄱ)에 더 동의	(ㄴ)에 더 동의	(ㄴ)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한다.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자국의 이익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우선한다.			인류 공동의 이익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다.
인류 보편의 가치는 문화적 특수성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문화적 특수성은 인류 보편의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그림> A국과 B국의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과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 (단위: 억 원)



[문제 2-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해석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C국은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소비자와 소수의 기업가로 구성된다. 기업가는 생산을 통해 C국에 경제적 이득을 주지만, 탄소를 배출하여 C국과 다른 나라에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C국의 탄소 배출량이 x (단, $x \geq 0$)인 경우, 기업가의 삶의 질은 $f(x) = 20x - 2x^2$ 이고, 소비자의 삶의 질은 $g(x) = 8x - 2x^2$ 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h(x) = -x^3$ 이다. C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국민 다수인 소비자의 여론을 반영하여 다음 중 하나로 정한다.

- (a) 소비자가 자국만을 고려할 경우, C국 전체의 삶의 질 $f(x) + g(x)$ 가 최댓값을 가질 때의 x 의 값
(b) 소비자가 타국에 미칠 환경 피해도 고려할 경우, 세계 전체의 삶의 질 $f(x) + g(x) + h(x)$ 가 최댓값을 가질 때의 x 의 값

두 경우 각각에 대해, C국의 탄소 배출량 x 와 그에 따른 $f(x), g(x), h(x)$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 결과를 해석하고, C국 소비자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C국 소비자, C국 전체, 세계 전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글자 제한 없음, 25점)

■ 예시 답안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와 〈그림〉은 가상의 A국과 B국의 세계시민의식 조사와 국내,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을 출제의도에 맞춰 작성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세계시민의식 조사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주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고 그 평균값을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국내,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은 A국과 B국 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표〉 해석

- ① 〈표〉는 자국민/외국인의 일자리, 자국 이익과 인류 공동의 이익,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 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음.
- ② 자국 이익과 인류 공동의 이익 간 우선순위의 경우, A국과 B국 모두 인류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치에 더 동의함. A국이 B국보다 인류 공동의 이익을 더 추구하지만 두 국가 간 차이는 크지 않음. 두 국가 모두 세계시민주의적 인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③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 간 우선순위의 경우, A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B국은 문화적 특수성을 우선시함. A국은 제시문 (가)의 보편적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하는 반면, B국은 제시문 (나)의 지역적 차이를 존중하는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 (rooted cosmopolitanism)에 더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④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국민과 외국인 고용 간 우선순위의 경우, A국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을, B국은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함. A국은 제시문 (가)의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하는 반면, B국은 제시문 (나)의 지역적 필요를 고려하는 세계시민주의에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⑤ 변수들의 우선순위 간격에 대해, 인류 공동의 이익 추구는 A국과 B국 간에 1 정도의 차이를 보임. 인류 보편의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A국과 B국 간에 3 정도의 차이를 보임. 경쟁상황에서의 고용에 대해서는 A국과 B국 간에 5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그림〉 해석

- ① 〈그림〉은 A국과 B국의 국내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음.
- ② A국의 기부 총액은 700억 원임. 그중 350억 원은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고, 350억 원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임.
- ③ B국의 기부 총액은 550억 원임. 그중 300억 원은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고, 250억 원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임.
- ④ 보편적 세계시민주의를 옹호하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A국은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⑤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를 옹호하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B국은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이 해외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보다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 ⑥ 국가에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A국의 기부금 총액이 B국보다 더 크다는 점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음.

문제 2-2

(1) 소비자가 자국만을 고려할 경우

C국의 삶의 질은 $f(x) + g(x) = -4x^2 + 28x = -4\left(x - \frac{7}{2}\right)^2 + 49$ 이다. 이차함수의 성질에 의해 $x = \frac{7}{2}$ 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C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frac{7}{2}$ 로 정한다. 그에 따른 $f(x)$, $g(x)$, $h(x)$ 의 값은 다음과 같다.

$$\text{- C국 기업가 삶의 질: } f\left(\frac{7}{2}\right) = 20 \times \frac{7}{2} - 2\left(\frac{7}{2}\right)^2 = \frac{91}{2} = 45.5$$

- C국 소비자 삶의 질: $g\left(\frac{7}{2}\right) = 8 \times \frac{7}{2} - 2 \times \left(\frac{7}{2}\right)^2 = \frac{7}{2} = 3.5$

- 다른 나라 사람들 삶의 질: $h\left(\frac{7}{2}\right) = -\left(\frac{7}{2}\right)^3 = -\frac{343}{8} = -42.875$

(2) 소비자가 타국에 미칠 환경 피해도 고려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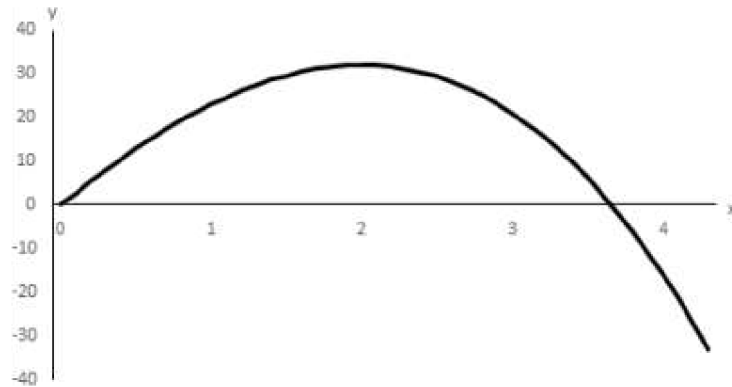
세계 전체의 삶의 질은 $f(x) + g(x) + h(x) = -x^3 - 4x^2 + 28x$ 이다. 즉, 정의역이 $x \geq 0$ 인 삼차함수이다. 이 삼차함수의 최댓값을 찾기 위해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한다.

$$f'(x) + g'(x) + h'(x) = -3x^2 - 8x + 28 = -(3x + 14)(x - 2).$$

따라서 이 도함수는 $x \geq 0$ 구간에서 $x = 2$ 일 때, 유일하게 극값을 가진다. 다른 점에서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x	0	$0 < x < 2$	2	$x > 2$
$f'(x) + g'(x) + h'(x)$		+	0	-
$f(x) + g(x) + h(x)$		증가		감소

그러므로 $f(x) + g(x) + h(x)$ 는 $x = 2$ 에서 최댓값을 가지며,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C국은 탄소 배출량으로 2를 선택한다. 그에 따른 $f(x)$, $g(x)$, $h(x)$ 의 값은 다음과 같다.

- C국 기업가 삶의 질: $f(2) = 20 \times 2 - 2 \times 2^2 = 32$

- C국 소비자 삶의 질: $g(2) = 8 \times 2 - 2 \times 2^2 = 8$

- 다른 나라 사람들 삶의 질: $h(2) = -2^3 = -8$

(3) 결과 해석 및 C국 소비자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의 영향

(a)에서는 C국 소비자가 자국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b)에서는 세계시민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두 경우의 탄소 배출량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a) 자국 중심주의	(b) 세계시민주의
탄소 배출량	x	3.5	2
C국 기업가 삶의 질	$f(x)$	45.5	32
C국 소비자 삶의 질	$g(x)$	3.5	8
C국 전체 삶의 질	$f(x) + g(x)$	49	40
다른 나라 사람들 삶의 질	$h(x)$	-42.875	-8
세계 전체 삶의 질	$f(x) + g(x) + h(x)$	6.125	32

즉,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가질 경우, C국은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면 기업가의 삶의 질은 하락하지만, 소비자의 삶의 질은 상승한다. 하지만 기업가의 삶의 질 하락 폭이 소비자의 삶의 질 상승 폭보다 커서 C국 전체의 삶의 질은 하락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대폭 증가한다. 따라서 C국 전체 삶의 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삶의 질은 상승한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가질 경우, 다른 나라 사람들의 환경 피해를 의사 결정에 고려하기 때문에 C국은 더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흥미롭게도, 탄소 배출량을 줄였음에도 C국

소비자의 삶의 질은 3.5에서 8로 올라간다. 이는 소비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도 고려하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삶의 질도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C국 소비자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상충하기보다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C국 소비자의 삶의 질 $g(x) = 8x - 2x^2$ 가 $x = 2$ 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즉,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의 탄소 배출량인 $x = 2$ 는 자신의 삶의 질도 최대가 되는 최선의 결과이다.

그러나 C국 전체 삶의 질은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에 기반하여 탄소 배출량을 정할 때 더 낮다. C국 기업가의 삶의 질이 45.5에서 32로 대폭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탄소 배출을 통한 생산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C국의 기업가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계 전체의 삶의 질은 C국 소비자가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가지면 6.125에서 32로 대폭 상승한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는 환경 피해가 42.875에서 8로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h(x) = -x^3$ 이므로, 탄소 배출량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탄소 배출량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C국의 탄소 배출량이 3.5에서 2로 감소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된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